

'빛폭탄' 내몰리는 자영업자 "폐업 위기 소호에 지원 집중해야"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2016년 이후 최고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경기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의 '하나금융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9%로 지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시중은행의 총대출 연체율(0.37%)이나, 중소기업 연체율(0.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2.12%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연체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68만9000명에 달했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565만7000명으로 3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치솟은 것은 내수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사업 지속 의지는 오히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응답률이 86.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 둘 계획'이라는 응답은 5.7%에 그쳤



다. 보고서 작성한 이종수 연구위원은 "소호들은 법인과 달리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고, 사업자금 중 자기자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 연체 등의 어려움이 직면할 때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사업을 지속하려고 노력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가 부실대출

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정이 하여진 비율(NPL)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0.37%로 연체율(0.49%)보다 낮았다.

때문에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에 좀 더 집중되는 것이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자금이 한도 소진까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는 방식은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며 "자금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소호가 저금리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경우 폐업 위기 소호가 오히려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뉴스시스



전남 청년농부 농산물, 부산 시민 입맛 사로잡아

롯데백화점 직거래장터서 1억9천만원 매출... 행사 정례화 발판

전라남도는 지역 청년농부들이 지난 7일까지 10일간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서 '청년농부마켓' 직거래장터를 운영, 부산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1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행사 정례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전라남도가 청년농부의 판로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전남의 우수 농특산물을 부산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직거래장터에는 총 23개 청년농가가 참여해 25개 대대를 운영했다. 고구마, 토마토, 파프리카, 유자콤부차 등 전남 각 지역의 대표 품목이 큰 호응을 얻으며 조기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롯데백화점 측은 이번 행사에 소비자와 청년농부 상품의 경이 평가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정례적인

행사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강현구 지오쿱(전남청년농부협동조합) 대표는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우리 농산물을 부산시민에게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남도는 매년 약 20회 대도시지역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부와 중소기업의 유통 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500여 농가(업체)가 참여해 18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청년농부들이 주도적으로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거래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계적 판촉 행사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 지역 학생들의 운동량이 늘고 건강한 식습관이 정착되는 등 건강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교육청은 2024(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지역 중·고등학생의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42.9%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2년 36.8%, 2023년

전남 학생들, 운동 늘고 패스트푸드 줄었다

건강지표 뚜렷한 개선...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37.3%로 해마다 상승하는 등 꾸준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 3일 이상 근력 강화운동 실천율은 25.9%,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주 5일 실천율은 19.4%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식습관 측면에서도 성과가 뚜렷했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4.3%로 전국 평균(28.9%) 대비 가장 낮았다. 단 맛 음료 섭취율도 64.1%로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전남교육청은 '튼튼한 몸, 건강한 마음'을 기조로 건강증진 통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로 구성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단을 중심으로 청소년 건강행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기지개 프로젝트, 건강 체력교실, 저탄소 녹색급식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건강은 교육의 근간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학생 중심의 건강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전라남도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산지 물량 소비 촉진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1천 103개소에서 오는 21일까지 7일간 최대 15%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관측에서 2025년산 조생양파 생산량이 21만톤 내외로 전년보다 7%, 평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과 경남북 등 주산지에서 6월 초부터 본격적인 중간생 양파 수확이 시작됨에 따라 공급과잉에 따른 가

전국 하나로마트서 양파 할인 행사

생산량 증가 예상 따라 소비촉진 위해 21일까지 최대 15%

격 하락을 방지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양파 422톤 할인행사를 하는 것이다.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양파 공급 가격을 산지에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가 할인행사를 추진해 소비자는 기존보다 7~15%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양파 1망(3kg)의 할인 전 가격은 5천 500원이지만, 이번 행사에선 4천700원에 판매된다. 단 지원물량 소진에 따라 행사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양파는 '땅속의 진주'로 불릴 만큼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물질인 '퀘르세틴(Quercetin)'을 함유해 성인병과 동맥경화 예방 등에 좋다. 가족 건강을 위해 식탁에

꼭 챙겨야 하는 채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양파 생육이 적절한 강우와 기온으로 생산단수가 늘어 고품질 양파의 풍년이 예상된다"며 "농가와 소비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사전에 대응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양파의무자조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5천 979ha로 전국의 34%를 차지하는 대표 주산지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미 관세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 실무 교육

AI활용 업무자동화 주제... 27일까지 수출기업 등 대상 접수

전라남도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실무 교육에 나선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담양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챗지피티(ChatGPT)로 만드는 인공지능(AI)비서와 업무자동화 전략 교육'을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27일까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누리집(<http://gj.kita.net>)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전남에 있는 수출기업 임직원이나 관련 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무역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업무자동화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형 프로그램이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전남무역아카데미'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1차 교육에서는 미국 관세 강화조치에 따른

수출입 물류 실무와 절충교역 전략이 다뤄졌으며, 참여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9일 진행될 2차 교육은 관세 대응의 연장선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주제로 관세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교육 내용은 ▲챗지피티 개요와 응용법 ▲무역영문 이메일 및 실시간 번역 실습 ▲중요 기사 및 핵심 정보 스크랩 기법 ▲맞춤형 인공지능비서 챗봇 구축 등이다. 단순 이론 강의가 아닌 실습 위주로 진행돼 실무 적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교육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직면한 수출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를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처리하도록 기획한 것"이라며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인공지능 기반 무역 실무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인 기자

